‘철기둥’ 김민재, 만점 수비에 도움까지 맹활약

걷어내기 5회·공중볼 승리 7회
나폴리, 크레모네세에 3-0 승리
올 시즌 최저실점 1위 이끌어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 입단 이후 처음으로 도움을 작성한 ‘괴물 수비수’ 김민재(27)가 ‘본업’ 수비에서도 맹활약하며 각종 수치에서 팀 내 1위에 올랐다.

김민재의 활약에 나폴리는 2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고, 올 시즌 최저실점 1위 자리도 지켰다.

김민재는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경기장에서 열린 크레모네세와 2022-2023 세리에A 22라운드 홈 경기에 아미르 라흐마니와 호흡을 맞춰 나폴리의 왼쪽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 풀타임을 뛰었다.

팀이 3-0 완승을 거둔 가운데 김민재 역시 후반 20분 빅터 오시멘의 두 번째 골을 도우며 ‘공격 본능’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날 김민재의 진가는 수비에서 더 발휘됐다.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 풋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걷어내기 5회를 기록했다.

라흐마니(3회)를 앞질러 팀 내 1위로 이 가운데 4회가 헤딩을 통한 걷어내기였다.

공 소유권을 가져온 횟수를 집계하면 12회나 된다.

공중볼 경합에서 이긴 횟수도 7회로 모두 팀에서 가장 좋았다.

함께 호흡을 맞춘 수비진 조반니 디로렌초(4회), 라흐마니(3회)를 합친 수준이다.

김민재가 버틴 나폴리 수비진을 상대로 크레모네세 공격진은 특히 뒷공간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반 추가 시간 크레모네세는 오른 측면의 마리우 후이와 김민재 사이 공간을 노려 침투패스를 시도했지만, 김민재가 상대 공격수보다 빠르게 질주해 공을 걷어냈다.

후반 16분에도 크레모네세의 공격수 펠릭스 아페나잔이 역습 중 가속을 붙여 후이를 따돌렸지만, 동선을 예측한 김민재에게 막혔다.

아울러 크레모네세 공격진은 유효슈팅을 단 한 차례 만들어내는 데 그쳤다.

월드컵 휴식기 후 리그에서 김민재 등 나폴리 수비진을 상대로 유효슈팅을 세 번 넘게 기록한 팀은 없었다.

지난달 5일 인터 밀란(1회)전을 시작으로 삼프도리아(2회), 유벤투스(2회), 살레르니타나(2회), AS 로마(3회), 스페치아(3회) 등 대부분 팀 공격진을 꽁꽁 묶었다.

이 7경기에서 나폴리가 허용한 실점은 2골이고, 5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았다. 연속 경기로 보면 이달 5일 스페치아전(3-0 승)에 이어 2경기째다.

승점 16 차로 선두를 질주 중인 나폴리는 실점(15골) 부문에서도 1위다. 이 뒤를 유벤투스(17실점), AS 로마·라치오(이상 19실점)가 뒤쫓고 있다.

김민재는 후방 빌드업 작업에서도 제 몫을 했다.

120회 패스를 시도해 106회를 성공시켰다. 성공률로 보면 88%다.

이날 나폴리에서 100회가 넘는 패스를 시도한 선수는 김민재가 유일했다. /연합뉴스

득점이 도움으로 나폴리의 김민재(골포스트 앞 흰색 유니폼)가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의 디에고 마라도나 경기장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세리에A 22라운드 크레모네세전에서 헤더를 시도한 뒤 넘어져 있다. 코너킥 상황에서 조반니 디로렌초가 헤더로 연결한 공을 김민재가 골 지역 왼쪽에서 몸을 날려 머리로 슈팅한 볼을 오시멘(맨 오른쪽)이 골대로 밀어 넣었다. /연합뉴스

최형우, ‘최다 타점’ 고지 눈 앞…“최선 다하고 기다릴 것”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 캠프

김여울 기자 미국 투싼 캠프를 가다

15시즌에 통산 1461타점
이승엽 KBO 기록 37개 남겨
우승이라는 목표 향해 도전

‘최다 타점’ 고지를 눈 앞에 뒀지만 KIA 타이거즈 최형우는 여전히 야구에 목이 마르다.

KIA 최형우에게 올 시즌은 많은 의미가 있다. 일단 KBO 최다 타점 기록이 최형우를 기다리고 있다.

최형우는 지난해 71점을 더해 통산 1461타점을 수확했다. 방출의 아픔을 딛고 KBO에 돌아와 15시즌을 보내면서 만든 값진 기록이다.

이승엽 두산 감독이 가지고 있는 KBO 최다 기록(1498타점)까지는 37개를 남겨놨다.

망막 이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2021시즌 55타점이 가장 저조한 기록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KBO 역사에 새 이름을 남길 수 있다.

최고의 자리에 도전하는 올 시즌은 갈림길이기도 하다.

최형우는 2017년 KBO사상 첫 ‘100억 사나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KIA 유니폼을 입었다. 최형우가 중심을 잡은 타선이 폭발하면서 KIA는 최대어를 영입해 같은 해 ‘V11’을 이뤄냈다.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된 최형우는 약속된 4년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한번 KIA와 손을 잡았다. 2020시즌이 끝나고 3년 재계약에 성공했던 만큼 올 시즌 KIA와의 두 번째 계약이 만료된다.

꾸준함의 대명사로 매년 크고 작은 기록들을 세워가면서도 최형우는 “하다 보니 됐다”며 덤덤한 반응을 보이곤 했다. 하지만 그런 최형우가 공식적으로 욕심을 내온 목표는 ‘최다 타점’이다. 그리고 ‘42살’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42살까지 야구 하는 게 목표”라는 최형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42살’을 거론하면서도 최형우는 스스로 “야구를 잘 했을 때”라는 전제 조건을 걸었다.

이루고 싶던 것 들을 눈 앞에 둔 최형우는 그래서 일찍 시즌 준비에 나섰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일찍 해외에서 몸 만들기’라는 자신의 루틴을 지키지 못했던 최형우는 3년 만의 해외 캠프를 위해 일찍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류지혁, 황대인과 지난달 15일 미국 애리조나로 들어와 자비로 운동장을 빌려 한 발 빠르게 시즌 준비를 시작했다.

KIA 타이거즈의 ‘최고참’ 최형우가 스프링캠프가 꾸려진 미국 애리조나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러닝을 하고 있다.

최형우는 “오랜만에 해외에서 스프링캠프를 하는데 좋으면서도 힘들다. 국내에서 훈련하는 것보다 많이 고되다.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몇 시간씩 서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며 “지금은 아무래도 계속 반복훈련을 하느라 힘든데 경기 들어가면 시간이 빠르게 갈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다.

최다타점과 42살의 야구라는 목표에 도전하는 중요한 시즌이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다.

최형우는 “말 안 해도 최다타점에 대해서는 다 안다. 다 왔다”며 “정확성도 높이고, 예전 만큼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딱히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중점적으로 하는 건 없다. 지금 바꾼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약해졌다고 해서 보완한다고 해도 결과가 쉽게 나오는 상태도 아니다. 똑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혹을 넘어서면서 나이라는 무게가 최형우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최형우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생각이다.

최형우는 “아프지 않고 하던 대로 해서 실력이 되면 좋은 것이다.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다”며 “잘해도 팀에서 원하지 않으면 끝인 것이고, 못해도 팀에서 원하면 다시 또 야구를 하겠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다”고 웃었다.

많은 것을 이루었고, 예전처럼 강렬하게 기록을 쌓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만큼 최형우는 최다타점과 함께 ‘우승’이라는 가슴 뛰는 목표를 향해 달릴 생각이다.

최형우는 “우승을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상위권으로 더 나아가되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다”며 “오랜만에 캠프 오니까 분위기는 좋은 것 같다. 재미도 있다. 하던대로 시즌에 맞춰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wool@kwangju.co.kr

광주FC 새 유니폼 출시·캐치프레이즈 ‘Yellow Spirit

광주FC가 2023시즌 유니폼과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했다.

광주는 13일 1부 리그에 복귀한 광주의 강렬한 의지를 표현한 새로운 유니폼 ‘The CLAW’(사진)를 출시했다. 또 광주만의 투혼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로 ‘Yellow Spirit’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이번에 공개된 유니폼은 지난 시즌 보여준 압도적인 K리그2 우승팀의 저력을 1부리그에서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담았다.

홈 유니폼 어깨 부분에 광주의 상징인 주작의 발톱 자국을 스크래치 형태로 삽입, 날카롭고 강력한 공격 축구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원정 유니폼은 흰색으로 주작의 발톱을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제작했으며, 노랑과 빨강을 혼합해 세련미와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몸통 부분에는 주작의 날갯짓을 각각 다른 형태로 패턴화해 2023시즌 잔류 그 이상의 목표를 위해 더 높게 비상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골키퍼 유니폼은 핫핑크와 블랙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캐치프레이즈 ‘Yellow Spirit’은 구단의 팀컬러이자 상징인 노란색을 활용해 1부리그에서 도전자의 입장이 아닌 강팀에게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광주만의 투혼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겠다는 뜻을 담았다.

한편 새 유니폼을 출시한 광주는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23시즌 유니폼 사전 주문(선착순 100벌)을 1·2차로 나눠 진행한다.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청이 이뤄지며 1차 사전 주문은 오는 15일 10시부터 21일 자정까지, 2차는 28일 오후 3시까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마홈스 시대 ‘활짝’ … 캔자스시티 슈퍼볼 우승

필라델피아에 38-35 승리

미국프로풋볼(NFL)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극적인 역전승으로 통산 3번째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의 주인공으로 등극했다.

캔자스시티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7회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에 38-35로 승리했다.

캔자스시티의 슈퍼볼 우승은 1969년 4회 대회와 2019년 54회 대회에 이어 통산 세 번째다.

특히 캔자스시티는 최근 4시즌 가운데 세 차례 슈퍼볼에 진출해 두 번 우승을 차지하며 ‘치프스 왕조’를 열었다.

올해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인 캔자스시티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는 팀 승리에 결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번 시즌 종료 후 NFL 역대 최고의 쿼터백인 톰 브래디가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마홈스는 팀에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선사하며 쿼터백 왕권 이양을 선언했다.

이날 마홈스는 3개의 터치다운 패스와 182야드를 던졌고, 단 한 차례도 인터셉션을 허용하지 않았다.특히 마홈스는 35-35로 맞선 4쿼터 경기 종료 1분 54초 전 상대의 반칙을 눈치채고 일부러 그쪽으로 패스하는 넓은 시야를 보여줬다.

미국프로풋볼(NFL)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가 12일 슈퍼볼 우승 트로피인 ‘빈스 롬바르디’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후 마홈스는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를 31-20으로 잡았던 2019년 54회 슈퍼볼에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 슈퍼볼 MVP에 선정됐다.

이번 포스트시즌 내내 안고 있던 발목 부상 때문에 하프타임 때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마홈스는 “날 경기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말해왔다”며 “우리는 도전했고, 승리하려면 팀 모두가 필요했다. 우리가 슈퍼볼 챔피언”이라고 선언했다. /연합뉴스